다산포럼

정 지 창

동남권 신공항, 정말 필요한가?

동남권 신공항 후보지를 놓고 영남지역의 여론몰이가 이성과 상식의 한계를 넘어 일종의 '여론 전쟁'으로 치닫고 있다. 이곳 대구·경북지역의 신문과 방송, 관공서, 대학, 관변단체들은 한목소리로 '밀양 공항 유치만이 살 길'이라 외친다. 60~70년대의 대규모 궐기대회와 비슷한 열기가 후끈하다.

대구 시내는 물론이고 추풍령 근처의 산골 마을에도 밀양 공항을 지지한다는 플래카드가 붙어 있다. 심지어는 대학 안에서도 곳곳에서 찬성 서명을 받는 것을 보자니 평소에 이 문제에 별 관심이 없던 나도 슬그머니 불안해지기 시작한다.

불현듯이 옛날의 악몽이 되살아났기 때문이다. 아마 1990년대 초반이었을 것이다. 당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경주에 경마장을 만드는 문제로 논란이 벌어졌다. 말이 논란이지 사실은 일방적인 찬성 여론몰이였다. 나는 이곳 신문의 칼럼을 통해 천년고도이자 문화관광 도시인 경주에 경마장은 어울리지 않는다는 의견을 내놓았다가 한동안 곤욕을 치렀다.

어떻게 전화번호를 알았는지 집으로 전화를 걸어 닫자 곧자 쌍욕을 퍼붓는가 하면, 점잖게 본관이 어디고 누구 자손이냐고 캐묻는 통에 전화 벨 소리만 울리면 소름이 끼칠 지경이었다. 말투는 다양했지만, 결국 하는 말은 왜 지역발전에 반대를 하고 찬물을 끼얹느냐는 거였다. 경주의 사정에 밝은 신문사의 관계자는 전화를 한 사람들 대부분이 경마장 후보지 주변에 땅을 가진 지역 유지들일 것이라고 나중에 귀띔을 해주었다.

그런데 그렇게 열렬한 지역여론의 지지를 등에 업고 추진된 경주 경마장 건설은 지표조사 결과, 각종 생활유적과 유물이 쏟아져 나오면서 학계의 거센 반발과 문화재보호법에 부닥쳐 좌초하고 말았다. 부지 매입비와 진입도로 건설비, 복구비 등 모두 80억을 날리고 공사는 2001년 공식적으로 취소되었다.

애당초 땅만 파면 유물과 유적이 나오는 경주에 경마장을 만들겠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것이었다. 그러나 여론몰이에 앞장섰던 지역 유지들과 기관장, 정치인과 공무원 가운데 사과를 하거나 책임을 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솔직히 말해 나는 경남 밀양과 부산의 가덕도 가운데 어디가 더 신공항으로 적합한지 잘 모른다. 각종 공청회 자료와 인터넷의 공방 내용을 훑어보아도 명확한 판단이 서지 않는다. 이런 자료들을 검색하면서 나는 오히려 '정말 신공항이 필요할까', '신공항 건설의 근거로 내놓은 예상 승객 수와 항공화물 물량이 부풀려진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을 품게 되었다.

그도 그럴 것이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공항들이 김해와 제주를 빼놓고는 대부분 적자에 허덕이고 있기 때문이다. 각 권역별로 예상 수요를 근거로 건설된 공항들이 왜 승객이 없어 문을 닫거나 개점휴업 상태에 있는가. 이유는 간단하다.

조사기관이나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수요를 부풀려 계산하고 이를 근거로 무리한 공항 건설을 정치논리로 밀어붙였기 때문이다.

가장 전형적인 사례가 김제공항이다. 1998년에 시작된 김제공항 공사는 2004년 감사원에서 수요를 과다 예측했다고 지적한 다음 공사가 중단되어 결국 공항 부지는 채소밭으로 바뀌고 활주로는 고추 말리는 데 사용되고 있다고 한다. 그동안 498억 원의 세금이 낭비되었으나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신공항 건설은 애향심이나 지역의 자존심을 내세워 밀어붙일 문제가 아니다. 지역 단체장과 정치인들의 업적 쌓기와 선거 때의 표 계산이 아니라 엄정한 경제적 타당성의 잣대로만 따져볼 문제이다. 신공항을 기정사실로 전제하고 밀양이냐 가덕도냐를 놓고 지역별로 죽고 살기식 여론전쟁을 할 것이 아니라 영남권의 신공항이 정말 필요한 것인지, 외국의 중립적인 연구기관에 의뢰하여 처음부터 다시 따져보았으면 좋겠다.

지금도 대구와 울산, 포항, 사천 등지의 영남권 공항들이 파리를 날리고 있는 판에 밀양이나 가덕도에 신공항이 생긴다고 해서 갑자기 승객과 화물이 늘어날 것 같지는 않다. 엄청난 돈을 들여 공항을 새로 만들기보다는 김해공항을 좀 확장하면 되지 않을까? 〈영남대 독문과 교수〉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설

국토부, 광주공항 이전 일방적 결정은 안돼

광주시와 국토해양부가 광주공항 국내선의 무안공항 이전문제를 놓고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강운태 광주시장이 최근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광주공항 국내선 존치와 국제선 재유치를 요청한데 대해 국토부가 이를 거부하자 이번에는 광주시가 정면 반박에 나선 것이다.

먼저 국토부는 호남고속철도 개통 전후인 2014년까지 광주공항의 국내선 기능을 무안공항으로 이전하는 내용의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을 다음 달 발표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무안공항 개항 때부터 계획된 것으로, 무안공항 활성화와 KTX 개통 등을 감안하면 무안공항으로의 이전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에 광주시는 21일 "광주공항 이용객을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불합리한 공항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정부 방침에 정면 거부할 태세다. 흑자를 누리던 광주공항이 2008년 국제선을 무안공항에 넘겨준 이후 지난해 14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무안공항 역시 64억 원의 적자를 내 양 공항이 모두 쇠락하는 원인을 제공했다는 게 그 이유다.

우리는 양측의 주장이 나름대로 근거와 설득력이 있다고 본다. 하지만 국토부가 다음 달 광주공항 국내선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종합계획을 일방적으로 발표하겠다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 적어도 광주시민의 여론을 살피고, 가장 합리적인 안을 도출하기 위한 검증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다.

광주시 역시 2014년 호남고속철이 개통되더라도 광주공항 이용객 중 60% 이상이 광주~제주 간의 이용객인 만큼 공항 존치를 주장하고 있으나 경제성도 따져야 하고, 군 비행장의 이전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광주·전남의 발전과 시·도민의 항공 편의를 확보하는 것이지, 공항 그 자체가 아니라는 점이다. 모든 가능성을 놓고 열린 자세로 해결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5·18단체 간 갈등 심화 안타깝다

5·18구속부상자회가 '5·18 민주유공자단체 통합추진위원회'(통추위) 탈퇴를 선언했다. 구속부상자회 관계자가 22일 "5·18 유족회, 부상자회에 19일까지 통합 합의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통추위를 해산하겠다고 통보했는데 이들 단체의 서명이 없어 통추위를 탈퇴하겠다"고 밝혔다. 5·18 단체 간 통합은커녕 2년 전 어렵사리 출범한 통추위마저 해체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지난 2008년 12월 5·18 구속부상자회, 유족회, 부상자회 등 3개 단체에서 4명씩 참여해 구성된 통추위는 5·18 단체의 통합문제 등을 논의해 왔다. 하지만, 대의원 수, 보상금 지급, 1종 의료보호혜택 등 각종 현안에 놓고 단체 간의 입장이 달라 지난 6월 이후 단 한 차례의 회의조차 갖지 못하는 등 파행을 겪고 있다.

우리는 5·18 통추위가 파국만은 피하기를 바란다. 5·18은 올해로 30주년을 맞았으나 아직까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 최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이영조 위원장의 망언에서 보듯이 지금도 5·18 민주화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끊임없이 폄훼하려는 세력이 엄존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5·18 단체간의 내분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세력들에게 자칫 광주민주화운동 정신을 왜곡하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5·18은 한 세대가 흐른 지금까지 발포 명령자도 규명되지 않는 등 미완성인 채로 남아 있다. 직접 당사자인 5·18 단체가 힘을 합해 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다는 얘기다.

5·18 단체는 그동안의 불신과 갈등을 접고 '5·18 정신'의 깃발 아래 똘똘 뭉쳐 미완의 과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특히 5·18 단체를 바라보는 지역민과 국민의 시각이 예전같지 않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할 것이다. 통추위가 다시 가동돼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한다.

NGO 칼럼

박 상 희

자전거 마을 만들자

인류가 생존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이야기한다. 우리는 아무 일 없던 듯이 어제에 이은 오늘을 맞고 내일을 준비한다. 하지만 환경적이지 못한 생활습관에 의해 지구는 자정능력을 잃어가고 급기야 재앙의 길로 접어들 것이라고 한다.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화석연료가 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 지목되면서 탄소중립화가 전세계의 주요한 화두가 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현 정부 들어서면서 저탄소 녹색성장의 하나로 자전거가 귀하게 대접받는 시대가 되었다. 그러나 현정부가 하는 것처럼 자전거를 타는 것조차 개발의 논리로 봐서는 안 된다. 자전거가 시민들의 생활 속에서 지구온난화 등 환경문제를 극복하는 것이라는 의미는 잘 알고 있지만 실제 자전거를 타는 사람은 많지 않다. 왜일까를 자문해 봐야 한다. 자전거 도로를 내고 자전거를 보급하는데만 앞장섰지 자전거를 타게 하는 근본적인 의식의 전환을 끌어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저 레저용으로 폼나게 질주하는 도구로만 바라보고 있을 뿐이다. 자전거를 왜 타야 하는가의 공감대를 형성하지 않고는 자전거 인구를 늘리는데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본다.

자전거 타는 문화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이제는 자전거 마을 만들기를 해야할 시기가 되었다. 마을단위, 지구단위로 쾌적하고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는 것이다. 자전거 마을만들기는 자연환경과 역사적 유산이나 문화재를 지역의 관광자원으로 연결하여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지역을 여행하며 돌아다니는 수단으로 자전거 활용을 촉진하는 것이다.

그리고 레저활동이나 건강증진의 도구로서 자전거 이용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점 터미널을 만들고, 자전거 타기에 좋은 새로운 루트를 만들어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노력하는 것이다. 또한 자전거 마을만들기는 시민의 일상생활에 대응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공공시설 등의 교통 기관과 연계를 도모해 생활의 편리성 향상에 참여하는 것이다.

자전거 타기 좋은 마을만들기는 고령자, 장애인 등을 배려하는 시설을 정비해 쾌적한 정주문화를 제공한다. 또한 장보기 등의 시장 접근성과 대중교통과의 접근 수단으로서 또는 주변관광의 교통수단으로서 상업과 관광을 연결해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자전거교통환경, 이용환경 및 주행환경 등을 정비하는 것에 의해 자전거 이용자의 자전거에 대한 인식, 이해가 생기고, 보행자와 대중교통 간 공존과 공영의 배려문화가 완성된다.

우리는 지구온난화로부터 인간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희망을 자전거 마을만들기에서 찾고자 한다. 일상생활 가운데 자전거는 환경친화적이며 건강증진, 차량정체해소, 통근, 통학, 장보기 등의 편리한 교통수단이 되고 있다. 과제는 안전하고 쾌적한 이용환경을 만드는 것과 자전거 이용자의 도덕성을 향상하는 것이다. 이는 자전거 타기에 좋은 환경을 가진 지역이나 마을을 만드는 것으로 연결된다.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하나의 대안운동으로 우리는 친환경 무공해 교통수단인 자전거를 선택했다. 더워지는 지구의 기후변화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적 삶이 없는 한 우리 인간은 피할 수 없는 파멸의 길을 예고하고 있다. 기술의 진보와 함께 편안함을 추구하는 인간의 이기를 극복하고 지구를 위해 불편함을 감수하는 삶으로의 획기적 전환이 필요하다.

〈광주YMCA 빛고을바이크단장〉

기 고

최 영 호

남구청사, 백운광장 이전에 큰 관심을

지금 남구에서는 구청사와 의회청사를 백운광장 구(舊) 메카트로 건물(화니백화점)로 이전하는 사업을 한창 추진 중이다.

메카트로 건물은 프랑스의 세계적인 부동산 투자 회사인 ㈜퍼니인베스트먼츠가 지난 2007년 경매를 통해 250억 원에 매입했던 곳이다. 남구는 퍼니인베스트먼츠와 수차례 협상을 통해 11월 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내년 5월 말까지 매입비용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이 건물을 105억 원에 매입하기로 합의했다.

현재 구 청사는 전국에서 유일한 조립식 가설건축물로 내구연한 10년을 훨씬 넘긴 낡고 노후화된 건물로 화재 등 사고발생 위험이 크다. 또한 건물이 비좁아 일부는 컨테이너박스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구의회 청사 또한 구청과 멀리 떨어져 있어 주민불편을 초래해 왔고, 낡은 건물을 임대해 사용하고 있어 종합청사 마련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현안이다.

특히 기획재정부 산하 준 정부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의 제안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지난 4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남구가 청사를 이전하면 위탁개발사업(건물 리모델링)에 참여하겠다는 제안을 해 왔었기 때문이다. 만약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이런 제안이 없었다면, 건물 리모델링에만 약 25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청사이전 추진은 엄두조차 내지 못했을 것이다.

청사이전 방침을 결정하고 난 뒤, 남구는 구의회와 수차례에 걸쳐 협의를 해왔다. 또한 20회가 넘는 주민설명회와 언론을 통해 홍보활동을 해왔다. 구의회에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의의결했고, 광주시는 지방재정 투융자 심의에서 옛 메카트로 건물 매입이 적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청사이전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지난 8월 강운태 광주시장의 남구 초도순방 때, 예산지원을 건의했고, 긍정적 검토를 약속했기 때문에 자체예산을 더한다면 105억 원의 확보에도 별다른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윤대한 광주대교수, 윤판 광주시 교통정책연구실장, 최병근 변호사, 김채인 안진회계법인 변호사, 이상복 남구 주민자치협의회장, 언론인, 구의원 등 건축·도시교통·법률 전문가 24명이 참여하는 종합청사이전추진위원회도 지난 15일 구성됐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한 가지가 남아 있다. 그동안 수십 차례에 걸친 주민설명회 등을 가졌지만, 보다 광범위하고 적극적인 주민의견을 수렴해 청사 이전 사업에 반영하는 것이 그것이다. 따라서 남구는 오는 24일 공청회를 개최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중앙 여론조사기관과 지방 여론조사 기관 각각 1개씩을 선정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주민여론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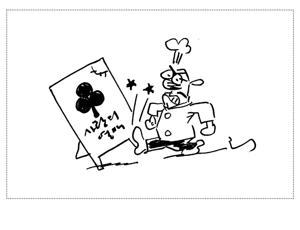
효천지구로 청사를 이전할 경우 550억 원, 옛 보훈청 및 병원 부지로 이전하면 490억 원, 현 청사부지에 신축하면 400억 원의 비용이 소요된다. 이와 비교할 때, 105억 원을 들여 청사를 이전하는 것은 최소비용으로 최적의 효과를 내는 길이다.

남구가 청사이전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다하고 있는 만큼 구민과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린다.

〈광주시 남구청장〉

無等鼓

비리의 열매



살다 보면 가끔 '황당한 일'이 벌어지곤 한다. 일상에서 사람이나 조직에 거는 기대 가치에 정반대의 현상이 빚어질 때 겪는 느낌이다.

최근 '사랑의 열매'가 '비리의 열매'로 바뀌는 바람에 많은 사람이 어처구니없어 하고 있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낸 돈을 관리하고 배분하는 일을 맡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직원들의 부도덕성이 세상에 드러났기 때문이다.

연말이 다가오면 자주 눈에 띄는 게 바로 옷깃에 꽂는 사랑의 열매 배지다. 선명한 빨간 열매 세 개는 나와 가족, 이웃을 상징한다. 1970년대부터 불우이웃돕기의 심벌로 자리 잡은 사랑의 열매는 찬바람 속에서도 사람들의 가슴을 훈훈하게 해주었다.

이처럼 따뜻한 이미지를 지니고 있던 사랑의 열매가 최근 '비리'와 '부도덕'의 오물을 덮어쓰는 바람에 국민들을 크게 실망시키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감사한 결과, 그동안 공동모금회는 아무런 견제나 감시를 받지 않았던 탓에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했다. 지난 5년간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방 등에서 업무용 법인카드로 2000만 원 상당을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182차례에 걸쳐 모두 3억 5000만 원을 쓴 워크숍에서는 스키장, 래프팅, 바다낚시 비용 등으로 모두 2900만 원이 집행됐다. 그럼에도 이번 감사를 불러온 성금 유용 의혹 등 관계자에 대한 징계는 사실상 전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어려운 사람을 도우라며 국민이 십시일반으로 보내준 돈의 일부를 유흥비로 쓸 생각을 한 직원들의 발상 자체가 의아하다. 작년 이맘때 지면을 통해 단 100원이라도 이웃사랑 실천을 위해 사랑의 열매를 달자고 말한 기억이 떠올라 허탈해 진다.

직원의 공금 유용과 비리 때문에 모금활동이 크게 위축돼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이웃들의 피해가 걱정된다. 못된 직원들의 비리는 엄하게 꾸짖되 이웃사랑의 마음을 버려서는 안 될 것이다.

/박치경 사회부장 unipark@kwangju.co.kr

◇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매일 이어폰 사용 청소년들 소음성 난청 장애 높아 자제를

요즘 초·중등생들에게도 MP3와 이어폰은 필수품이 되었다. 하지만 한창 성장중인 초·중등생들이 매일 이어폰을 끼고 다닐 경우 소음성 난청 장애가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다고 한다.

이어폰에서 흘러나오는 소리는 자동차 경적소리와 맞먹는 90dB 수준이라고 한다. 이런 큰 소리가 고막 가까이에서 들리기 때문에 청력에 손상을 주는 건 당연한 일이다.

최근에는 노화현상으로 인해 병원을 찾는 60~70대보다 오히려 잦은 이어폰 사용으로 소음성 난청을 호소하며 병원을 찾는 20~30대가 많다고 하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가정에서는 이 같은 심각한 문제를 인지하고 학생들의 이어폰 사용을 적절히 조절해줘야 할 것이다. 또한 이어폰 사용자들도 자신의 귀가 혹사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하고 MP3와 이어폰 사용을 자제해야 할 것이다. ▲나윤성·광주시 남구 봉선2동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 金鐘宅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書庚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문화생활부	2200-661
편 집 부	2200-649	여론매체부	2200-621
정 경 부	2200-612	체 육 팀	2200-697
〈대표 FAX	222-4918〉	사 진 부	2200-693
사 회 부	2200-616	조 사 부	2200-571
〈대표 FAX	222-4267〉	전 산 팀	2200-685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홍보국	2200-54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광고마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디 자 인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기획사업국	2200-555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